

우리나라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방안 연구

A Study on Service Strategie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이세정(Sejeong Lee)¹, 김유승(Youseung Kim)²

E-mail: gyudong2005@naver.com, kimyus@cau.ac.kr



¹ 제 1저자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전공 석사과정
²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1-10-21
최초심사 2021-10-27
게재확정 2021-11-09

ORCID

Sejeong Lee
https://orcid.org/0000-0002-9546-518X
Youseung Kim
https://orcid.org/0000-0002-3087-3553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이 논문은 2020년도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 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초 록

본 연구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의 복합적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립 타당성, 사례, 서비스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개념 및 특징, 기능, 서비스 측면을 이론적으로 논한다. 사례연구로서,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복합적 성격을 확인한다. 이어서,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현황, 이용경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록전문가 면담연구를 진행하여, 현행 우리나라 통합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문제점과 한계를 논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전망을 진단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나라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방안을 정보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전시서비스, 아웃리치 서비스 등 4가지 영역으로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complex service plans for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It analyzes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justification, cases, and service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The characteristics, functions, and service aspect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are theoretically discussed. As a case study, the service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in the United States are analyzed, and the study finds the complex nature of the services. Furthermore, interviews with archival experts are conducted on the subject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experience in use, and improvement measures to discus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tegrated presidential archives services and diagnose the prospects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In conclusion, it proposes the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service strategies in four areas, namely,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support service, exhibition service, and outreach service.

Keywords: 개별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법, 아웃리치 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전시서비스, 정보서비스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presidential records act, outreach service, research support service, exhibition service, information service

1. 시작하는 글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정에 따라 최초 설립된 대통령기록관은 성남 나라기록관 부속 기관을 거쳐, 2016년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2021년 현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은 통합형대통령기록관이다. 대통령기록관 설립 당시, 개별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으나, 좁은 국토 면적, 재정, 이용자 편의 등의 상황이 고려되어 역대 대통령기록을 통합 관리, 보존, 활용하는 통합형으로 채택되었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건우사 종합건축사무소, 뮤지엄스코리아, 2007, 1). 이후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들을 거치면서 통합형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지만, 아직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설립 당시 기대효과로 대통령기록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성 강화,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박물관 전시기능, 시민들을 위한 정보·역사 교육기능, 역사와 정책 연구를 위한 정보센터 기능 등이 강조되었고(조영삼, 2011, 155), 이 내용들은 고스란히 『대통령기록물법』에 담겼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는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 전시, 교육 및 홍보”,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등을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 간 형평성과 기계적 중립성,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기록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통합형대통령기록관은 이와 같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이영지 외, 2018, 75). 기록의 관리와 보존은 활용을 전제로 행해질 때 그 가치가 살아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서은경, 정경희, 최상희, 2006, 66), 대통령기록관 역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으나 통합형대통령기록관은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은 기계적 형평성과 중립성에 얽매이지 않고 기록관이자 도서관, 연구센터, 전시관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합문화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시설, 지역 관광명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논의와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고, 여전히 논의는 설립 당위성, 설립 절차의 영역에 정체되어 있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기능과 역할, 더 나아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기록관 서비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개별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주목한 복합적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들은 첫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립 타당성을 다룬 연구, 둘째, 개별대통령기록관 사례 연구, 그리고 셋째, 대통령기록관 서비스를 주제로 한 연구 등,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기록관리제도에 관한 논의의 일환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립 타당성을 다룬 연구들은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연구로 다시 나누어볼 수 있다. 법률 제정 이전, 대통령기록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주장한 연구 성과로는 박찬승(1999), 이상민(1999), 김성수, 서혜란(2002)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논란과 법률 시행 후 드러난 법률상 미비점 분석을 주된 주제로 한 연구로는 남태우 외(2007), 이영학(2009), 조영삼(2020) 등이 있다.

둘째, 개별대통령기록관 사례를 살펴본 연구 성과로는 정용오(2011), 박희정(2014), 박세훈(2019) 등의 연구들이 있다. 정용오(2011)는 미국의 개별대통령 도서관, 영국과 호주의 수상기록물 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박희정

(2014)은 프랑스, 미국, 러시아의 대통령기록관리 제도를 분석하였다. 박세훈(2019)은 통합대통령기록관이 활용과 전문적 수집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대통령기록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성과는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전반에 관한 연구, 대통령기록관의 정보 서비스에 관한 연구, 대통령기록관의 전시서비스에 관한 연구,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서비스 전반에 관한 연구로 조민지(2006)는 미국 개별대통령도서관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분석하였고, 이영지 외(2018)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관과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현황과 서비스를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관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로 김지현(2013)은 연구자를 위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방기영 외(2015), 이정현 외(2015), 정혜정, 이해영(2018) 등은 대통령기록관의 웹 정보서비스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Linked Open Data 기반 대통령기록관 정보서비스 확장에 관한 연구,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소셜미디어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그 외 김태영 외(2014)는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의 전시서비스에 관한 연구로 김혜윤, 김지현(2019), 이재나, 유현경, 김건(2015) 등이 다양한 이용자 기반의 전시서비스 방법을 제안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의 교육서비스모형을 제시한 심갑용 외(2015), G-learning 환경의 대통령기록 활용 모바일 교육콘텐츠 개발방법을 제시한 최민희 외(2016),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유형을 제안한 송나라 외(2017)의 연구 등이 있다. 그 외 이해원, 이해영(2015)은 기록관의 전학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국 대통령도서관, 외교부 사료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3. 개별대통령기록관에 관한 이론연구

3.1 개념 및 특징

개별대통령기록관은 개별대통령마다 별도의 조직 및 시설을 만들어 특정되는 개별 대통령기록의 수집에서부터 보존, 전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기록관의 한 유형으로, 단일한 조직과 시설 내에 역대 대통령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대통령기록관과 명확히 구분된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은 통합 대통령기록관과 달리, 개별 대통령마다 독립된 조직, 건물, 시설을 통해 대통령기록을 관리, 보존, 활용한다는 점에서 분산형 대통령기록관으로 불리기도 한다(박세훈, 2019, 13-14).

개별대통령기록관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국립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 산하에 15개 개별대통령기록관을 두어 대통령기록물을 분산적으로 관리하는 개별대통령기록관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합형 대통령기록관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2007년 대통령기록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 당시, 통합대통령기록관과 개별대통령기록관 중 어느 유형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짧은 기간 동안 전인미답의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서둘러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합대통령기록관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조영삼, 2020, 63). 이후, 2017년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대통령기록의 정치적 악용 방지와 대통령기록관의 중립적 운영을 보장을 위한 혁신 우선과제의 일환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수립을 권장한 바 있다(국가기록혁신 TF, 2017, 13-14), 하지만 ‘국가기록혁신 TF’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개별대통령기록관 수립 계획은 다시금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져, 실현되지 못하였다(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획제도과, 2019).

그러나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공적 논의조차도 어려운 사회정치적 맥락과 통합대통령기록관 단일체제라는 현실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물법』은 제정 당시부터 ‘필요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2007년 제정법(법률 제8395호) 제25조를 통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으며, 이는 현행법(법률 제17573호)에서도 설치 주체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규정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리제도는 시작부터 통합대통령기록관과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양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점은 대통령기록의 서비스 품질 제고, 활용 증대, 지역발전 기여, 정치적 악용방지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 관리와 지리적 이점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우선, 특정 대통령의 기록만을 이관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적 기술, 정리 업무가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이는 기록관의 핵심 이용자인 해당 전직 대통령과 연구자들에게 대한 서비스 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84). 둘째, 대통령기록의 접근과 활용을 증대할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을 포함한 대통령기록에 대한 해당 전직 대통령의 편리한 접근은 지정기록에 대한 해제 또한 용이하게 만들어, 국민들이 지정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며, 공개 확대를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조영삼, 2020, 158). 셋째,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은 단순한 기록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대표적 관광자원이자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정용오, 2011, 35, 36). 넷째, 대통령기록관리제도 수립 이후 반복되었던 대통령기록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할 수 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대통령기록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설립을 권장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을 통한 지정기록의 전문적 관리를 통해 대통령기록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국가기록혁신 TF, 2017, 13-15).

한편, 단점으로는 운영비용과 일반 이용자 접근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 부지 매입, 건물 및 시설 설치, 그리고 장기적 운영비용이 개별 기록관마다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먼 타 지역 일반 이용자의 접근 및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 미국의 사례를 들어, 개별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에 대한 의도적 접근 제한, 비공개, 자의적 해석을 통한 역사 왜곡 등의 역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조민지, 2009, 213-256). 그러나 이와 같은 단점들에 대해서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립보다 통합대통령기록관의 증축 비용이 더 크다(권수현, 2019)는 반론과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을 통해 접근성이 보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84).

통합대통령기록관 역시 비용,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단점이 논의되고 있다. 통합대통령기록관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단일 기록관에 의한 역대 대통령 기록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역사적 단절 없는 역대 대통령의 전시관을 운영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한 공간에서 역대 대통령기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정용오, 2011, 15). 또한, 역대 대통령기록을 균등하게 수집, 보존함으로써, 정치적 편향성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통의 특수성을 지닌 여러 대통령기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기록관리 업무 및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조영삼, 2011, 157;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건우사 종합건축사무소, 뮤지엄스코리아, 2007, 9). 한편, 단점으로 이영지 외(2018, 75)는 역대 대통령 간 형평성 및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대통령기록의 적극적 공개와 활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논하였으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78)은 기록전문직의 잦은 순환근무로 인해 대통령기록에 대한 전문성이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영삼(2020, 65)은 통합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거듭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3.2 기능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전통적인 아카이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는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으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분류, 평가, 기술, 보존, 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 관리”,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 전시, 교육 및 홍보”,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 점검”, “개인기록물의 수집,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관의 업무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규정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시, 교육 및 홍보, 연구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 기능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필요에 따른 전시관, 도서관 및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대통령기록을 연구, 활용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별대통령기록관 역시 대통령기록관의 기능과 성격을 이어받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25조 제4항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관 기능의 대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에 해당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개별 대통령기록관과 통합대통령기록관의 기능적 차이는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 점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관련된 관리, 감독 기능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개별대통령기록관과 통합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은 동일하다. 즉, 개별대통령기록관은 법령에 의해, 전시, 교육, 홍보, 연구지원 등의 복합적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

3.3 서비스

대통령이 갖는 지위와 권한이 막중한 만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은 공공기록 가운데서도 최고 정점이며 공적 직무수행에 대한 증거자료나 후대의 연구 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양춘만, 2012, 2). 『대통령기록물법』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까지도 대통령기록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개인기록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으로 간주된다(전용호, 2007, 19).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한 『대통령기록물법』 제25조 제4항을 근거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유형을 정보공개, 열람, 검색 서비스를 포괄하는 ‘정보서비스’, 대통령기록의 학술적 활용을 촉진하는 ‘연구지원서비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설 및 기획 전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전시서비스’, 교육, 홍보 등의 ‘아웃리치 서비스’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서비스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부터 기록관, 도서관, 전직 대통령 전용 열람실 등의 운영, 검색도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포함한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건우사 종합건축사무소, 뮤지엄스코리아, 2007, 122). 열람서비스는 단순 열람뿐만 아니라 기록과 기록 관련 정보 일체의 열람, 복제, 대출 서비스를 포함한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이용자를 위해 기록물 열람실과 해당 대통령과 관련된 도서를 구비한 도서 열람실을 운영해야 한다. 지정기록물을 포함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에 있어 열람의 의미와 중요성은 일반 공공기록물과 크게 다르다. 특히, 자신이 생산한 지정기록물의 사실상의 독점적 열람권을 가진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8조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의3은 일반 열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사본 및 복제물을 통한 제공 등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열람 편의를 위한 전용 열람실과 열람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에서의 연구지원서비스란 학술연구자와 기록전문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통령기록물 연구를 촉진시키고, 학술연구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며, 대통령기록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층적 정보서비스로, 학술열람서비스, 학술연구지원, 학술행사 기획 및 실행 등이 있다(김태영 외, 2014, 86;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7, 122). 학술열람서비스로는 주제 파일시리즈별, 폴더별 목록 기술, 주제별 컬렉션 구성, 목록제공, 다양한 검색도구 개발, 온라인 목록서비스, 온라인 원문제공 서비스, 해제집 발간,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의 목록 업데이트 등이 있으며(조민지, 2006, 179), 학술연구지원으로는 출판지원, 연구비 지원 등이 있다(김태영 외, 2014, 89). 연구비 지원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이 해당 대통령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일정 금액을 후원하여 연구 결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연구, 역사 연구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기록관리 분야의 세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학술연구지원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전용호, 2007, 172).

셋째, 대통령기록관의 전시서비스는 기록관이 가진 유용성을 입증하고 정보전달과 교육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도구이자 수단이며(조민지, 2006, 180) 대통령기록과 일반 대중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7, 94). 개별대통령기록관은 퇴임 후 대통령의 개인 활동, 대통령재단의 활동 등 다양한 대통령기록을 수집하며, 대통령과 관련한 시민 기록 등 다수의 대통령 상징기록을 생산할 수 있다(박세훈, 2019, 37; 이영남, 2013, 159). 이런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은 해당 대통령만의 특색 있는 전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 전시는 첫째,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며, 둘째, 전시 물량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의 활용으로 오프라인 전시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복합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외 하나의 전시 콘텐츠를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다(이혜원, 이해영, 2015, 239; 조민지, 2006, 180).

넷째, 아우리치 서비스는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 등을 포함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7, 132), 국가 지도자로서 해당 대통령과 당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선정, 2007, 36). 교육프로그램은 기록관사료활용 안내교육, 검색도구 이용교육과 같은 기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심 높은 이용자를 위한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며, 미취학 아동, 학생, 교사 등 이용자 유형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수준별, 주제별, 단계별, 대상별 교육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다(조민지, 2006, 179-180).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학년별로 구분하여 현대사, 인물, 대통령 등의 주제별 교육과정 혹은 교과서 연계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7, 132; 이해원, 이해영, 2015, 239). 모의의사결정 프로그램, 대통령 정책결정 역할극 프로그램 등 체험프로그램 또한 적극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박성희, 2010, 60).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교수자료 제공, 교수자료 활용법 교육, 해당 대통령 정책 주제 교육 등이 있다(조민지, 2006, 180; 이해원, 이해영, 2015, 239; 심성보, 2007, 215-216).

홍보활동으로는 출판프로그램, 각종 행사프로그램 등이 있다(김건하, 2010, 27-28). 출판프로그램의 일환인 리플릿, 팸플릿, 소장 자료집, 안내책자 등은 소장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전시나 문화행사 소식 등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이숙경, 2007, 93), 해당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연구 출판물, 연구보고서 등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학술연구자의 주제 및 기록 탐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김태영 외, 2014, 100). 개별대통령기록관의 행사프로그램으로는 특별 강좌, 이용자 참여 문화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사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인식을 확대하며, 참여 이용자들은 물론 잠재적 이용자들에게까지 이미지 쇄신과 인지도 상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김건하, 2010, 28; 박현정, 장우권, 2015, 398).

4.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사례연구

다음에서는 1938년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 설립 이래로 80여 년의 연혁을 가지고 있는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정보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전시서비스, 아웃리치 서비스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사례연구들을 분석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최신 오프라인 서비스 현황과 온라인 서비스를 확인, 분석하였다.

4.1 정보서비스

미국 대통령기록관들이 제공하는 기록정보의 범주는 대통령 재임 시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대통령의 일생 전반에 걸친 기록도 서비스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이 제공하는 포괄적 범주의 기록정보는 다양한 유형과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전통적인 종이매체 기록과 시청각 기록뿐만 아니라, 문서 기록의 한계를 보완하는 구술기록을 생산,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록을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검색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종이기록과 시청각기록은 방문열람이 가능하며 일부 대통령기록관은 우편을 통해 신청 받은 기록의 사본을 제공하기도 한다. 방문 및 열람 절차, 우편 신청 절차와 비용에 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방문 열람을 위해서는 신청서 및 저작권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록관별로 전자기기 사용 여부 등 각각의 열람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일부 기록관은 방문 전 예약이 필수이며 대부분의 기록관이 방문하기 전에 아키비스트가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록관에 미리 연락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많은 대통령기록관들은 직접 기록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록관은 키워드, A-Z 디렉터리, 날짜별, 유형별 검색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10월 현재,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 7곳의 온라인 디지털 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와 기록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 온라인 디지털 정보서비스 유형

대통령	검색유형			기록유형				
	키워드	디렉터리 (A-Z)	날짜	문서	사진	구술	오디오	비디오
후버	×	×	×	×	○	×	×	×
루즈벨트	○	○	○	◎	○	×	○	○
트루먼	○	○	○	◎	◎	○	●	×
아이젠하워	○	○	×	◎	○	○	○	○
케네디	○	○	○	○	○	○	○	○
존슨	○	○	○	○	○	○	○	○
레이건	○	○	○	○	○	×	○	○

○ 제공 × 미제공 ◎ 주제별 제공 ● 기간별 제공

4.2 연구지원서비스

미국 대통령기록관은 정보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대통령 사료 기반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대학연계 프로그램, 연구비 및 장학 프로그램, 학술회의 및 각종 포럼 프로그램 등이

있다. 대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존슨, 포드, 부시, 클린턴 대통령기록관 등이다. 예를 들어, 존슨 대통령기록관은 존슨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미국의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존슨 공공정책대학원(LBJ School)을 지원하고 있다(LBJ Presidential Library, 2021b).

한편,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존슨,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기록관 등이다. 존슨 대통령기록관은 관장을 역임한 해리 미들턴(Harry Middleton)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해리 미들턴 지원금을 매년 두 번 각 5천 USD씩을 지급하며, 아이젠하워 대통령기록관은 역사, 정부, 경제, 커뮤니케이션 및 국제 문제 분야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기록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1천 USD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트루먼 대통령 기록관은 비영리기관인 트루먼 도서관 연구소(Truman Library Institute)를 설립하여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 연구자에게 1년에 두 번 각 최대 2천5백 USD의 지원금을, 박사과정 학생에게 1년에 두 번 각 최대 1천6백 USD를 지원한다. 또한 트루먼 시대의 공공정책 및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인 박사후과정 연구원에게 학자상을 수여하며 연구지원금 3만 USD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에서 연구하는 동안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존 K. 힐스톤(John K. Hulston) 장학금 지원이 있다(Truman Library Institute, 2021b).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케네디 도서관재단을 통해 연구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다.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한 기록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최대 5천 USD를 지원하며, 아바 슈윙츠(Abba Schwartz) 연구지원금, 아서 M. 슬레싱어 주니어(Arthur M. Schlesinger Jr.) 연구지원금, 테오도르 C. 소렌센(Theodore C. Sorensen) 연구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2021).

4.3 전시서비스

미국 대통령기록관은 상설 전시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기획 전시, 순회전시를 운영하고 온라인 전시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상설전시는 대통령의 일생과 대통령 재직 시 수행했던 업무와 사건들을 상징하거나 해석하는 기록물로 구성된 전시로서 일반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핵심적 전시서비스다.

후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의 출생부터 상무장관으로 임명되어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리고 대공황 도래의 과정을 포함하여 8개 섹션에 걸쳐 상설 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Herbert Hoover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2021),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은 상설 전시를 통해 뉴딜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한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다(FDR Library, 2016b).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의 상설전시는 대통령의 생애와 세계 2차 대전, 한국전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의 상설전시는 재임 후 트루먼의 삶에 대해서도 4개의 섹션을 통해 다루고 있다(Truman Library Institute, 2021a). 트루먼 대통령기록관은 재단에 의해 기획된 상설전시는 해당 대통령의 업적이나 치적만을 내세울 수 있다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문제점을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조민지, 2009, 228).

이와 같은 각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전시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서 가상투어, 오디오 투어, 디지털 컬렉션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은 'Behind the Scenes'를 통해 상설 전시된 박물관 사진과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설전시에 전시되지 않은 박물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https://www.fdrlibrary.org/exhibitions>), 카터 대통령 기록관은 'Google Arts&Culture'를 통해 가상투어를 제공한다. 가상투어는 카터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시작되며 마우스를 움직여 실제로 전시관을 관람하듯이 관람할 수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 역시 가상투어를 제공한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의 가상투어는 별도의 가상투어 홈페이지(<http://www.fdrlibraryvirtualtour.org/index.asp>)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섹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상투어가 이루어진다. 부시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온라인으로 상설 전시에 대한 오디오 투어를 제공한다.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기획전시는 상설전시에서 활용되지 않은 행정박물을 전시하기 위해 기획되거나 대통령과 관련된 주제들 중 상설전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 기획되고 있다. 후버 대통령기록관은 1928년 Good Will 투어를 주제로 기획 전시를 진행했으며 케네디 대통령기록관은 캐롤라인 케네디 인형 컬렉션, 영부인의 선물 컬렉션 등의 전시를 진행한 바 있다. 레이건 대통령기록관은 FBI의 역사를 주제로 전시(2021.7-2022.1)를 진행하고 있다.

4.4 아웃리치 서비스

미국 대통령도서관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견학프로그램과 출판프로그램, 강연회, 자원봉사, 인턴직 제도 등을 운영하며 각종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교육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문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은 가정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와 교사용 지침, 현장 프로그램 등을 학년별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FDR Library, 2016a). 존슨 대통령기록관은 다양한 강연회와 포럼을 진행하는 사례이다. 존슨 대통령기록관은 전화 녹취록을 공개할 때마다 별도의 공개행사를 진행하며 관련 기록과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각종 행사를 개최해왔다. 최근에는 존슨 대통령기록관 50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녹음된 존슨대통령의 전화 테이프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가 개최되었고, 이 외에도 기자, 작가, 교수, 상원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초청하여 미국 내 사회적인 이슈나 기록관이 위치한 텍사스 내의 이슈에 대한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LBJ Presidential Library, 2021a).

출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로는 루즈벨트 대통령 기록관과 레이건 대통령기록관이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 기록관은 재단을 통해 정치, 경제, 기후, 노동, 인종문제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논문, 보고서 등을 출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는 출판물들도 간행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기록관은 민주주의, 교육, 시민, 평화 등을 주제로 출판물을 간행하고 있다.

4.5 소결

미국 대통령기록관을 정보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전시서비스, 아웃리치 서비스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사례를 통해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대통령의 재임시절 기록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서비스 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도구를 제공하며 온라인 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연구지원금 제도, 대학연계프로그램, 포럼 진행, 외국어 가이드 및 주제가이드 제공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을 활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설치된 지역과 관련된 특별전시나 순환전시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 전시와 순환전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문화기관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넷째,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견학프로그램, 강연회, 자원봉사, 인턴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연회는 해당 대통령에 대한 주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나 기록관이 위치한 지역 내 이슈를 주제로도 진행된다.

이처럼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정보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시서비스와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록관이자 연구센터, 전시관, 지역 내 커뮤니티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인 문화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5. 면담 연구

5.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현황, 이용경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면담연구를 진행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방안에 대한 기록연구자들과 현장기록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 분석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기록관리 분야 연구자와 현장 기록전문가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기록관리 분야 연구자 4명과 현장 기록전문가 3명, 총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2021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4주 간 진행되었고 전화 및 화상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내용을 녹음 및 녹화하였다. 화상면담은 ZOOM을 이용하였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약 47분이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여 사전 질문지를 기반으로 진행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질문을 수정하거나 추가 질문을 통해 면담자들의 응답을 이끌어내었다.

5.2 면담 분석

5.2.1 정보서비스

면담자들의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보 서비스 경험은 모두 온라인 서비스였다. 현장 방문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이용 경험이 있는 면담자는 없었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의 정보서비스 요구의 대부분이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면담자들의 대통령기록관의 온라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서비스 현황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만족도 역시 매우 낮았다. 원문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과 기록에 대한 기술, 기록 계층 간 연결성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면담자들은 기대했던 원문 서비스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사이의 간극이 크다고 답하였다. 제공되는 원문이 매우 제한적이며(면담자 F), 상세 검색 기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거의 없다(면담자 F)는 응답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기록 계층 간 연결성에 대해서는 ‘철’ 검색결과와 ‘건’ 검색결과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검색 결과가 동일하지 않은 점과 계층별 링크가 부재하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고, 기본 검색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언급되었다.

“일단 검색의 기본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페이스가 너무 이용자 친화적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지 상세하게 원하는 기록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기록을 찾은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 검색 결과만 봤을 때는 원하는 기록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고 (...)” (면담자 A)

이 외에도 정치적 형평성 고려로 인해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면담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시행 전 생산된 대통령기록의 부족, 지정기록물제도 등 접근권이 제한되는 대통령기록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기록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현 대통령기록관의 정보서비스의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다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지 질문하였다. 면담자들은 공통적으로 특정 대통령에 대한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면담자들은 개별 대통령 생애 기록 서비스와 개별 대통령의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대통령의 생애 전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기록이나 정당 활동 기록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기록뿐만 아니라, 민간기록, 개인기록까지 수집해서 공공기록과 같이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 (면담자 A)

“대부분 대통령 생애 관련된 기록들이겠죠. 그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요 정책들, 외교 관련 기록들을 콘텐츠화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각 개별 대통령들이 핵심적으로 수행했던 정책들을 서비스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 (면담자 C)

면담자들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은 통합대통령기록관보다 특정 대통령 기록에 집중하기 때문에 정리가술이 빠르게 이루어져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지체되고 있는 대통령기록 정리 작업의 현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면담자도 있었다.

“기록물을 등록하고 나서 정리가술을 원활히 해야 서비스가 나갈 거 아니에요. 목록화 과정이라든지 정리가술이라든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프로세스가 진행된다면 대통령기록서비스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면담자 B)

“지금 17대, 18대 대통령 임기가 끝난 지 꽤 됐는데 아직 대통령기록관은 정리 등록이 안 끝났다는 거죠. 모든 대통령을 같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 그런데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있다 하면 정리등록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가 빨리 끝나고(…)” (면담자 F)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엄격히 지키고자 하는 기계적 중립성으로부터의 자유가 정보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과 긍정적 기대도 제시되었다.

“기계적 중립성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빠른 이관과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제대로 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면담자 D)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생기면 해당 대통령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통합형이다보니 기계적인 중립성 논의가 있기도 하고 너무 정치적인 콘텐츠는 다루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생기면 그 대통령만 고민하면 되니 그 대통령을 좀 깊이 있게 깊이 있는 내용으로 서비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담자 G)

5.2.2 연구지원서비스

면담자들 중 어느 누구도 연구지원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었다.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는 의견과 현재의 연구지원서비스는 정보공개청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면담자들의 의견은 사실상 연구지원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이라는 인식이었다.

“단순하게 요청하는 자료를 찾는 수준입니다. 연구를 하는 데 크게 조언해준다든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안내해주는 수준까지는 못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기록물 우수연구논문집을 진행하고는 있어요. 논문을 쓰는 데 연구지원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구논문을 공모해서 받는 정도인 것 같아서 이것도 연구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면담자 G)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다면 어떤 연구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지 질문하였다. 면담자들은 개별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하며, 서비스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면담자들은 무엇보다도 유능한 기록전문가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면담자들은 기록전문가만으로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수준 높은 연구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록전문가뿐만 아니라 역사, 정치, 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통령기록들 대부분이 대통령이 수행한 정책에 관련된 기록들이잖아요. 정치적 행위나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기록관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역사학, 정치학, 행정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제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기반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야지 연구지원서비스가 가능한데(…)” (면담자 C)

한 면담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다면 전직 대통령의 열람이 용이해져 지정기록물의 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연구자들이 관심가질 만한 정책기록들이 빠르게 서비스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면담자 F).

5.2.3 전시서비스

면담자 대부분은 전시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다. 다양한 정책적, 정치적 이슈들을 대중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시서비스가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시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면담자들은 현행 통합형 대통령기록관이 가지는 기계적 중립성 및 형평성의 고려가 전시서비스의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통합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제도의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단절적, 파편적 전시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하고(면담자 C),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평면적 전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면담자 F). 다음으로 전시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면담자 E는 전시 구성 시 이용자들의 관심과 관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시할 때에는 관람객들을 고려해야 해요. 관람객이 재미있어하는 건 뭘까. 대통령기록물 중에 어떤 걸 보여드리면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 2019년에 역대 대통령께서 받으신 선물을 선별해서 전시했어요. 관람객들이 이런 선물도 대통령기록물이나며 (…) 반응이 좋았어요.” (면담자 E)

이어서 전시서비스 제공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면담자 E는 참여한 이견들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문자들을 고려하며 전시가 구성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관람객들을 고려하면서 전시해요. 형평성이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기록물의 수량을 들 수 있어요.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전시한 전 층에 고르게 배치하려고 해요. 대통령 개인보다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에 주목해서 인물 중심이 아닌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직무와 대통령제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어요.” (면담자 E)

향후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다면 전시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지 질문하였다. 면담자들은 기존의 통합대통령기록관의 전시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는 전시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개별대통령기록관을 통한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전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컸다. “정치인으로써의 삶, 대통령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전 일상에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면담자 B), “대통령의 삶과 철학, 정책”의 세세한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면담자 G)가 제공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될 경우 해당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미화와 업적 중심의 전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갈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개인기록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 내용은 좀 풍부해질 수 있는데 전시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어요 (….) 그 대통령에 대한 시대의 평가가 함께 전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면담자 A)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적절한 견제 도구를 통해 긍정적 효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은 (….) 그 대통령의 치적만 홍보하고 강조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객관적인 기록에 기반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학문적인 영역에서 비판한다면 그게 꼭 부정적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 (면담자 F)

5.2.4 아웃리치 서비스

면담자 대부분은 대통령기록관의 아웃리치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았거나, 알고 있는 아웃리치 서비스가 없다고 답했다. 면담자 G만이 2019년까지 진행되었던 대통령기록관 체험프로그램, 교과과정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의 아웃리치 서비스에 답변했다. 다음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 시 제공되었으면 하는 확장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했다. 응답자들은 자원봉사, 인턴직, 해당 지역과 연계한 문화 행사 등을 언급했으며 단순히 기록관이 아닌 문화기관으로써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면담자 A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복합적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결국 개별대통령기록관 가면 도서관, 아카이브, 기념관이 결합된 형태로 (….) 기념관 기능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록물만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서, 문화, 행정박물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면담자 A)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 아카이브, 기념관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유형으로 라키비움이 제안되기도 하였고(면담자 B), 개별대통령기록관 아웃리치 서비스를 위해서 문화행사 진행과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면담자 C).

5.2.5 개별대통령기록관 운영

면담자들은 향후 설립될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정보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기준과 원칙이 더욱 분명하게 수립되어야 하며(면담자 A) 지정기록물을 포함한 전직대통령의 열람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이라든지 노무현 사료관이든지 사실상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서비스가 빠지고 대중적인 전시서비스나 아웃리치 서비스만 있는 거죠. 법령에 근거한 제대로 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보서비스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면담자 D).

“전직대통령에 대한 열람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그게 강화되어야 지정기록의 해제 등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민들도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저는 당연히 전시도 중요하고 아웃리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다면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담자 F).

한편, 개별대통령기록관이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면담자들도 있었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이라는 것도 일종의 전시관의 개념이고 이용자를 많이 오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려면 콘텐츠를 많이 양산해야 하잖아요 (…).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첫 번째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그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 (…). 그 다음 단계로부터 전문적인 연구가 계속되면서 확장성을 가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면담자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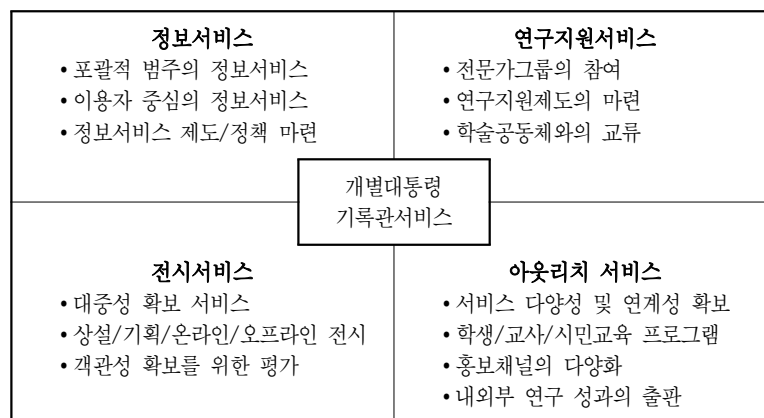
5.2.6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면담자들의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자들은 신속한 정리기술을 바탕으로 대통령 생애 전반의 기록에 대한 깊이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개별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둘째, 면담자들은 한 목소리로 기록전문가와 주제전문가의 적절한 채용이 수준 높은 연구지원서비스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고 다양한 연구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셋째, 면담자들은 전시서비스의 대중성에 주목했다. 통합형대통령기록관이 제공하는 전시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에 공감하며, 개별대통령기록관 체제를 통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전시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다만, 개별대통령기록관 전시서비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넷째, 다양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해 기록관을 넘어 복합문화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중장기적 전망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면담자들은 복합적 서비스의 중심에는 반드시 확고한 정보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6. 우리나라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방안

앞선 이론연구, 사례연구, 면담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방안을 정보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전시서비스, 아웃리치 서비스 4가지 측면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서비스 방안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방안

첫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정보서비스는 포괄적 범주의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통합대통령기록관의 태생적 한계를 넘어, 재임 시 생산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기록뿐만 아니라 해당 대통령의 생애 전반과 관련된 기록, 개인기록, 구술기록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통합대통령기록관과 달리, 역대 대통령기록의 분류, 정리, 기술 업무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담과 현실적 업무 적체로부터 자유로

을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관된 기록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분류, 정리, 기술 작업을 진행하고, 주제별, 정책별, 인물별, 조직별 검색이 가능한 다양한 검색도구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정보서비스는 전직 대통령의 열람 보장과 기록 공개 원칙의 수립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하는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밀기록과 지정기록의 생산당사자인 해당 대통령의 적극적 열람권 보장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차별적 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 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 과감한 지원제도의 마련, 학술연구 공동체와의 지속적 교류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통합대통령기록관이 가질 수 없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특징인 인적 구성의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다. 기록전문가와 주제전문가가 주도하는 기록관 내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집단과 상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재단 또는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나, 기록관이 설립된 지역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소 설립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전시서비스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전시서비스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이 해당지역의 중심적 복합문화시설이자,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선보이기 위한 핵심적 서비스다.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온라인전시, 특별전시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대통령의 삶 전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획전시를 진행하거나 지역과 관련한 특별전시를 진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비대면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전시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지나친 미화와 업적 중심의 전시를 방지하기 위해 폭넓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평가가 전시에 수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아우리치 서비스는 교육프로그램, 견학프로그램, 홍보, 출판, 지역문화행사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하며, 연구지원서비스, 전시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상호적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견학프로그램은 전시서비스와 연계하여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자원 봉사자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판은 기록관의 자체적 출판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서비스를 통한 외부 연구성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7. 맺는 글

이상에서 논의하였듯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은 통합형대통령기록관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대안으로서, 대통령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끊이지 않았던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기록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통합대통령기록관 서고 사용률이 80%를 넘긴 상황에서 추가 보존시설의 설립보다 비용적 우위를 가지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립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다면 이용자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러 지역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다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기록물법』에 재정 당시부터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논의는 정치적 논란 속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서비스의 측면에서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며, 실질적인 서비스 방안을 논하고자 하였다.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에 대한 논의가 대통령기록의 합리적 관리와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재개되길 바라며, 본 연구가 향후 설립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획제도와 (2019). 국가기록원,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전면 재검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국가기록혁신 TF (2017). 국가기록관리 혁신방안.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권수현 (2019. 9. 10.). 대통령 개별기록관 짓는다. 2022년 文대통령기록관 개관.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082551004>
- 김건하 (2010). 기록관 유형에 따른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김성수, 서혜란 (2002).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및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 41-66.
<https://doi.org/10.14404/JKSARM.2002.2.1.041>
- 김지현 (2013).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201-225.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2.201>
- 김태영, 김건, 심갑용, 김용 (2014).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2), 83-115.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2.083>
- 김혜윤, 김지현 (2019). 대통령기록관 전시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 어린이 및 동반 성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2), 139-183. <https://doi.org/10.20923/KJAS.2019.62.139>
- 남태우, 오지영, 유보현 (2007).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165-188.
<https://doi.org/10.14404/JKSARM.2007.7.2.165>
- 박성희 (2010). 대통령기록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박세훈 (2019).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통한 한국 '통합형' 대통령 기록관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박찬승 (1999). 역대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제안함. 역사와 현실, 34, 1-15.
- 박현정, 장우권 (2015). 아카이브 이벤트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1), 391-42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1.391>
- 박희정 (2014). 대통령기록관리의 쟁점과 대안 모색.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 방기영, 이능금, 이우진, 한아랑, 김용 (2015).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모델 개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25-48.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4.025>
-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 (2006).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65-92.
<https://doi.org/10.14404/JKSARM.2006.6.1.065>
- 송나라, 이성민, 김용, 오효정 (2017). 자유학기제에 적용가능한 대통령기록물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록학연구, (51), 89-132.
<https://doi.org/10.20923/KJAS.2017.51.089>
- 심갑용, 임지훈, 박종욱, 송나라, 장효정, 김용 (2015).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교육서비스 모형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127-155.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1.127>
- 심성보 (2007).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기록학연구, (16), 203-258.
<https://doi.org/10.20923/KJAS.2007.16.201>
- 양춘만 (2012). 대통령기록관의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이상민 (1999). 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제도의 성립과 발전. *미국사연구*, 10, 143-180.
- 이선정 (2007).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연구. 미국대통령기록관의 홍보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이숙경 (2007). 대통령기록관 설립에 따른 기록물 활용방안-전시·교육·홍보 프로그램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이영남 (2013). 상징아카이빙: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8), 125-187.
- 이영지, 오계윤, 정상준, 윤은하 (2018). 국내 통합 대통령기록관 및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대통령기록물 서비스 현황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69-97. <http://doi.org/10.14404/JKSARM.2018.18.4.069>
- 이영학 (2009). 대통령기록관리제도 시행의 의의와 과제. *역사문화연구*, 33, 393-426.
- 이재나, 유현경, 김건 (2015).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대통령기록관 전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87-114. <http://doi.org/10.14404/JKSARM.2015.15.3.087>
- 이정현, 이운용, 방기영, 김용 (2015). Linked Open Data기반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보 서비스 확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55-82. <http://doi.org/10.14404/JKSARM.2015.15.2.055>
- 이혜원, 이해영 (2015). 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 대통령기록관을 사례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219-245. <http://doi.org/10.14404/JKSARM.2015.15.3.219>
- 전용호 (2007). 대통령기록관의 기록정보 서비스 체계 연구. 한국의 대통령기록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 학대학원.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디지털 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 대통령기록관.
- 정용오 (2011).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정혜정, 이해영 (2018). SNS와 민원에 기반한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165-191. <http://doi.org/10.14404/JKSARM.2018.18.3.165>
- 조민지 (2006).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157-184. <http://doi.org/10.14404/JKSARM.2006.6.2.157>
- 조민지 (2009). 미국대통령기록관의 역기능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 213-256. <http://doi.org/10.20923/kjas.2009.20.213>
- 조영삼 (2011). 한국의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 조영삼 (2020).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기록학연구*, (65), 47-88. <http://doi.org/10.20923/kjas.2020.65.047>
- 최민희, 최정원, 한혜원, 김용 (2016).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반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G-learning 모바일 콘텐츠 개발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261-284. <http://doi.org/10.4275/KSLIS.2016.50.1.261>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건우사 종합건축사무소, 뮤지엄스코리아 (2007). 대통령기록관 설치·운영 방안 연구. 국가기록원.
- Duff, W., Yakel, E., & Tibbo, H. (2013). Archival Reference Knowledge. *American Archivist*, 76(1), 68-94. <https://doi.org/10.17723/aarc.76.1.x9792xp27140285g>
- FDR Library (2016a). Educators. Available: <https://www.fdrlibrary.org/educators>
- FDR Library (2016b). Permanent Exhibit at the Franklin D. Roosevelt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Available: <https://www.fdrlibrary.org/exhibitions>
- Ginsberg, W., Lunder, E., & Richardson, D. (2015). The Presidential Libraries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Librari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vailable: <https://sgp.fas.org/crs/secretary/R41513.pdf>
- Herbert Hoover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2021). Exhibits. Available: <https://hoover.archives.gov/exhibits>
-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2021). Research Fellowships & Grants. Available: <https://www.jfklibrary.org/archives/research-fellowships-grants>
- LBJ Presidential Library (2021a). Events. Available: <https://www.lbjlibrary.org/events>
- LBJ Presidential Library (2021b). History. Available: <https://www.lbjlibrary.org/about>
- Montgomery, B. (2003). Presidential Materials: Politics and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American Archivist*, 66(1), 102-138.

Smith, N. K. & Stern, G. M. (2006). A Historical Review of Access to Records in Presidential Libraries. *The Public Historian*, 28(3), 79-116. <https://doi.org/10.1525/tph.2006.28.3.79>

Truman Library Institute (2021a) Permanent Exhibits. Available:

<https://www.trumanlibraryinstitute.org/library-museum/museum-exhibits/permanent-exhibits/>

Truman Library Institute (2021b). Research Grant - Fellowships & Awards. Available:

<https://www.trumanlibraryinstitute.org/research-grant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ng, Ki Yeong, Lee, Neung Geum, Lee, Yu Jin, Han, Ah Rang, & Kim, Yong (2015). A Study on Evaluation Mode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Web-Archival Information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4), 25-48.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4.025>

Choe, Min-Hui, Choi, JungWon, Han, Hye Won, & Kim, Yong (2016). A Study on Method to Develop Mobile Contents for G-learning Using the Presidential Archives Based on Digital Storytelling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1), 261-284. <https://doi.org/10.4275/KSLIS.2016.50.1.261>

Jeong, Hye Jeong & Rieh, Hae-young (2018). Directions for Vitalizing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Analysis of SNSs and Civil Peti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3), 165-191.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3.165>

Jeong, Yong-oh (2011). A Study on the Building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of Records. M.A. Thesis, Chung-Ang University.

Jeonju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2018). Research services for innovation and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of digital-based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Presidential Archives.

Jo, Min-Ji (2006). A Case Study on the Service Programs at the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2), 157-184. <https://doi.org/10.14404/JKSARM.2006.6.2.157>

Jo, Min-Ji (2009). A Study on the American Presidential Libraries focusing on dysfunct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0), 213-256. <https://doi.org/10.20923/KJAS.2009.20.213>

Jun, Yong Ho (2007). A Study on the Archival Reference Service of Presidential Archives: the case of Korean Presidential Archives. M.A. Thesis, Myongji University.

Kim, H. & Kim, J. (2019). A Study on Users' Awareness and Needs of Exhibit Services in the Presidential Archive: Focusing on Children and Accompanying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2), 139-183. <https://doi.org/10.20923/KJAS.2019.62.139>

Kim, Jihyun (2013). A Study on Research Services of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2), 201-225.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2.201>

Kim, Kun-Ha (2010). A Study on Methods to Activate Public Relation for Various Types of Archives.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im, Sung-Soo & Suh, Hye-Ran (2002). A Study on Establishing the presidential Library through Elevating the Status of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1), 41-66. <https://doi.org/10.14404/JKSARM.2002.2.1.041>

Kim, Tae Young, Kim, Geon, Shim, Gab-yong, & Kim, Yong (2014). A Study on the Methods to Improve the Research Support Service in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2), 83-115.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2.083>

Kwon, Su-Hyun (2019.9.10.). The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are established. Opening of the Moon Jae-In Presidential Archives in 2022. *Yonhap News*. Available: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082551004>

- Lee, Hyewon & Rieh, Hae-young (2015). Tour Program in Archives: Case Study for the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3), 219-245.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3.219>
- Lee, Jae-Na, Yoo, Hyeon-Gyeong, & Kim, Geon (2015). A Study on Exhibition of Presidential Archives Using Storytell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3), 87-114.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3.087>
- Lee, Jeong Hyeon, Lee, Youn Yong, Bang, Ki Young, & Kim, Yong (2015). A Study on the Extens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Linked Open Data in the Presidenti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2), 55-82.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2.055>
- Lee, Sang Min (1999). Formation of Presidential Library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 Historical Lesson for the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10, 143-180.
- Lee, Sook-Kyong (2007). A plan for utilizing archival materials in presidential archives. M.A. Thesis, Kyungpook University.
- Lee, Sun-jung (2007). A study on Operation of Presidential Archives - Focused on analysis the US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s PR sector. M.A. Thesis, Hannam University.
- Lee, Young Hak (2009). The Significance and Task in the Oper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history and culture*, 33, 393-426.
- Lee, young ji, Oh, gaeyoun, Jung, sang jun, & Youn, E. H. (2018).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and the Private Presidential Found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4), 69-9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4.069>
- Lee, Young Nam (2013). Metaphor and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8), 125-187.
- Nam, Tae-Woo, Oh, Ji-Young, & Yoo, Bo-Hyun (2007). A Study of President Records Management Law.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7(2), 165-188. <https://doi.org/10.14404/JKSARM.2007.7.2.165>
- National Archives Innovation TF (2017). National Archival Management Innovation Pla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Presidential Archives Planning Section (2019. 9. 11.). A full review of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ess release
- Park, Chan Seung (1999).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presidential memorial hall.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34, 1-15.
- Park, H.-J. & Chang, W.-K. (2015). Research for Activation Plan to Archive Events: Focused 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1), 391-42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1.391>
- Park, Hee Jeong (2014). Points of Dispute in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their Alternative Solutions. M.A. Thesis, Hanshin University.
- Park, Sae Hun (2019).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Integrated'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M.A.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Park, Sung Hee (2010).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education program in Presidential Archives. M.A. Thesis, Hannam University.
- Seo, Eun-Gyoung, Joung, Kyoung-Hee, & Choi, Sanghee (2006). Strategies for Improving User-Oriented Information Services at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1), 65-92. <https://doi.org/10.14404/JKSARM.2006.6.1.065>
- Shim, Gab-Yong, Lim, Ji-Hoom, Park, Jong-Ok, Song, Na-Ra, Jang, Hyo-Jeong, & Kim, Yong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Service Models Using Presidential Archives based on Ubiquitous Technolog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5(1), 127-155.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1.127>
- Shim, S. (2007). Composition and Development of Archival Content Service for Teaching-learning Material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6), 201-256. <https://doi.org/10.20923/KJAS.2007.16.201>

- Song, N.-R., Lee, S. M., Kim, Y., & Oh, H.-J. (2017). A Study on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Using Presidential Archives for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1), 89-132.
<https://doi.org/10.20923/KJAS.2017.51.089>
- The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Archives and Records, Geonwoosa General Architecture Office. *Museums Korea* (2007).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National Archives of Korea.
- Yang, Chun-Man (2012).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Online Archival Information Contents Service of Presidential Archives and Improvements*. M.A.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Zoh, Young Sam (2011). *A study on presidential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Korea*. Ph.D. Thesis, Myongji University.
- Zoh, Young Sam (2020).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5), 47-88. <https://doi.org/10.20923/KJAS.2020.65.047>